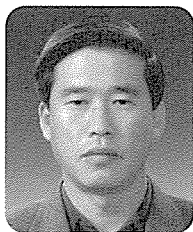


## 살아남는 양돈인이 되자



정 일 희  
본회 이사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이다. 7, 8월의 모든 관리는 내년도 고돈가때의 출하두수와 직결된다.

한·미 FTA, 고유가 등 우리 양돈산업을 위협하는 외적요인도 심각하지만 양돈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자돈 소모성 질병이 아닌가 싶다.

양돈 자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이 축사에서 사료를 급여하여 돼지를 기르는 산업이다.

물론 도축 후 유통이란 과정이 있지만 농가의 책임은 적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첫째로 사람이다. 주인이 하든 종업원이 하든 일에 쫓기지 말고 중요한 일 부터 순서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축사로써 기본적인 단열과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신사, 분만사, 초기자돈사, 자돈사, 육성비육사의 5단계 이상의 분리된 돈사 공간이 필수적이다.

셋째로 사료이다. 사료는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농장 실정에 맞는 사료를 선택하여 급여하면 된다.

넷째는 돼지이다. 튼튼한 모돈이(공장의 기계 역할) 있어야 건강한 새끼를 얻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농장 성적이 저하될 때는 모돈의 산차구성을 점검 개선해야 한다.

네가지 기본 요건을 설명하였지만 농장의 성적은 가장 잘못 관리되는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람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양돈인 들은 대부분 하루일과를 농장에서 보낸다. 농장 밖의 변화와 앞서가는 농장의 벤치마킹 등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일에 찌든 자신의 재충전을 위하여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적성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봉사단체 가입 등) 마련해야 진정한 양돈인이 아닐까? **양돈**